

21세기는 정신분열증의 시대인가

와다 히데끼의 《튀는 신세대, 숨는 신세대》

김정일

김정일 정신과의원 원장

출판저널로부터 와다 히데끼의 《튀는 신세대, 숨는 신세대》(이시형 옮김)의 신간읽기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서평은 청탁을 받으면 죽나 사나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나같이 독서에 게으른 사람에게는 좋은 자극제이다. 그래서 책을 읽어 보았으나 썩 끌리지 않았다.

우선 사람의 다양성이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의 통일된 가정으로 많은 현상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 영 못마땅했다. 히데끼는 분열형 인간이나 울병형 인간이라는 타입을 정의하고 최근에 일어난 여러가지 다양한 현상들을 그것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분열형은 외적 순응형으로 현대에서 젊은이들이 다 비슷비슷해지는 현상을 분열형 인간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그 이유로 분열증에서 겪는 피해 망상이나 과대망상의 주역은 자신이 아니라 주위 세계라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울병형 인간은 자기에게 구애되고 자기애적 인간은 그 중간 상태라는 것이다.

경직된 도그마의 획일적 진단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분열증 환자의 그런 망상들은 내외적인 원인으로, 불필요한 자극과 필요한 자극을 구분하는 자극의 장벽(stimulus barrier)이 낮아짐으로 인해 자기에게 무관한 자극을 유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발달한다고 알고 있다. 결국 자극을 해석하는 주체는 자신이고, 그들의 망상이 비현실감을 띠는 이유는 단순히 외적인 자극 때문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들의 인식과 사고를 교묘하게 해체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비현실, 초현실, 비이성, 초이성의 경험 때문이다.

또 분열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자폐증이고 그 안에서 그들이 겪는 것은 무의식의 무수한 신비체험이 아니던가. 이런 내적 현상은 외면하고 분열형은 외적 순응형, 울병형은 내적 순응형, 기성세대는 울병형, 젊은이들은 분열형으로 구분하고 그 경직된 도그마로 현대같이 다양하고 빠른 변화의 세계를 획일적으로 진단하려는 것이 아무래도 무리라고 느껴졌다.

예를 들어, 그는 럭비나 야구·농구는 그렇지 않은데 축구에서 J-리그의 폭발적인

와다 히데끼의 이 책은 현대사회

젊은이들의 인간형태를 분열형

인간이나 울병형 인간의 타입으로

정의하고 파악했다. 저자의 그런

입장은 현대의 다양하고 빠른

변화의 세계를 너무 획일적으로

진단하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집단중심에서 개성중심으로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고정된

틀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무리다.

현상을 젊은이들이 모두와 순응하려는 동일방어—모두와 똑같은 화제를 갖고 싶다, 모두와 똑같은 물건을 갖고 싶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두드러지지도 않고 따돌림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메커니즘의 집대성으로 빚어진 결과로 보았다.

그렇다면 왜 유독 축구에서는 동일방어를 쓰고 야구나 농구 럭비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까? 그의 논리로 봐서 축구가 어찌다 붐을 일으키자 너도 나도 축구를 좋아한다는 것인데 다른 것은 어찌다 붐을 일으켜도 너도 나도 좋아하지 않는데 왜 유독 축구는 그러할까에 대한 설명은 생략돼 있다.

또 CD의 거대한 판매량도 위같은 동일방어로 파악했는데 이것도 무리가 있다. 젊은이들이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CD를 엄청나게 많이 산다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약하다. 음악은 감정의 흐름으로 귀나 느낌에 부합하지 않으면 강한 거부감이 일게 된다. 그런데 요즘같이 개인주의적인 젊은이들이 혼자 듣는 음악을 남들과 똑같아지기 위해 억지로 사서 부둥켜 끼고 듣겠는가?

색안경을 낀 사람에게 세상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색안경으로 보려는 사람에게 세상은 자기 본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는다. 사물은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있는 것이다. 물론 그의 통찰이 일견 맞을 수는 있다. 그리고 그것이 소위 사회병리학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고정된 도그마에 사람들과 세상의 현재와 미래의 모두를 끼워 맞추려는 시도에



는 수궁할 수 없다.

물론 일본 사회같은 집단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나는 일본을 잘 모르고 별 관심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데 별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지금같이 변화가 심한 사회에, 특히 우리 사회같이 집단중심에서 개성중심으로 이행하는 사회에서는 하나의 고정된 인간형이나 틀로써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리이다. 그러나 분열형 인간과 울병형 인간의 작용을 떠나 사회현상을 심리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통찰은 여러 면에서 아주 예리하고 뛰어난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정신분석의 이론을 동원해 인간과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것들에게는 마치 정신과 교과서를 다시 리뷰하듯이 많이 배웠다. 특히 건강과 교육에 관한 다음의 두가지 관찰은 스스로에게 자신을 갖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에는 분열증의 시대

“인공 식품 첨가물이나 담배, 농약 등 분명히 몸에 해로운 것조차 어느 정도로 몸에 해로운 것인지 증명하는 일은 정말 어렵다. 사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물질에 가장 심하게 노출된, 이를테면 전쟁 이후에 농약과 인공첨가물이 듬뿍 들어 있는 것을 먹고 살면서 극도의 영양불량까지 경험한, 편안히 휴식을 취해 보지도 못한 채 일만 해온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 세계 제일의 장수를 누리고 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되도록이면 자연식품을 먹으며, 담배도 피우지 않고 일벌레도 아닌 우리들 세대가 과연 그들처럼 장수를 누릴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나는 입시 노이로제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다. 똑같이 시험공부를 한 사람 중에서 95% 이상은 입시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는다. 다른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한 시험때문에 노이로제나 울증에 걸리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아마도 입시 노이로제에 걸리는 사람은 시험이 없는 세계에 가더라도 결혼, 부모와의 이별, 취직, 그 외 여러가지 계기가 되어 똑같은 정신이상 증상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그의 울병형 인간과 분열형 인간은 결국 집단을 중시하는 인간과 개인을 중시하는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현대가 지금 분열증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히데끼의 말은 틀림없을 것 같다. 그러나 말에는 동의하지만 속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 앞으로 창궐하는 정신분열증은 그의 이론같이 모두에게 맞추면서 대충 적용하기 위한 분열형이 아니라 정말 자기소외로 인한 심각한 분열증일 테니 말이다. 그래서 만일 내가 앞으로 닥쳐오는 정신분열증에 대해 쓴다면 나는 아마도 이렇게 시작할 것 같다.

19세기는 성적 억압으로 인한 히스테리와 노이로제의 시대이고 20세기는 적개심이 원인이 된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의 기분장애의 시대라고 한다. 그렇다면 21세기는 어떠한가? 아마도 21세기에는 정신분열증이 창궐할 것이다. 이미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듯이 21세기에는 자기소외와 권태, 강한 개인만이 생존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경쟁관계를 무력화시키는 하이테크놀로지의 발달 등으로 인해 수많은 정신분열증이 발생할 것이다. 노이로제나 정신병은 일종의 방어이고 도피인데, 문제 해결을 하이테크놀로지가 해주고 변화가 빠르다 보니 개인들은 자꾸 약해지고 적응하기 힘들어 망상과 환각이 주된 정신분열증으로까지 도피하는 것이다. ❖

글이랑 / A5신 / 270면 / 6000원